

# “주전이 목표, 힘겨운 도전 자신 있어”

### 박병호, 메이저리그 2년 차 시즌 꿈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강한 몸을 되찾은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 2년 차 시즌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박병호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아스로 떠났다.

지난해 9월28일 시즌을 조기에 마치고 귀국한 박병호는 그동안 재활과 개인훈련에 집중하며 일찌감치 새 시즌을 위한 몸 만들기에 몰입했다.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중순까지 개인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KBO리그 4년 연속 홈런왕과 함께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하고 아쉽게도 바리그에 도전했지만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시즌 초반 반짝 활약했지만 이후 부진을 거듭하다 6월부터는 오른 손목 통증에 시달렸다. 7월2일 메이저리그로 내려간 뒤 결국 바리그 무대를 다시 밟지 못했다. 8월25일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다.

메이저리그 첫 해 박병호는 62경기에 출전해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아시아 출신 야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포스팅 금액으로 바리그에 안착했지만 전혀 몸값을 해내지 못했다.

특히 바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속수무책 당했다. 이번 겨울 한국에서 훈련하는 동안 속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타격폼을 수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박병호는 “수술하고 시간이 많았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준비

는 된 것 같다”며 “작년에 타이밍이 늦어서 못했는데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타격폼을 간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겨우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3년 계약이 남은 박병호지만 팀 내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그로서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도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1루수와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팀내 상황도 달라졌다. 박병호를 영입했던 테리 라이언 단장 대신 테드 레빈 단장이 부임했다. 박병호가 메이저리그로 내려가면서 바리그에 콜업된 케니스 바르그스가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박병호로서는 많은 것을 보여줘야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에는 팀내 기대와 함께 기회도 많이 부여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단장이 바뀐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바르그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호는 시즌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찍 재활 훈련을 시작한 만큼 몸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에도 변화를 줬고, 강도를 높여서 겨울 동안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변명거리가 딱 하나로 부상 핑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통증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바리그 2년 차 시즌을 앞둔 박병호는 아무것도 몰랐던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르지만 팀내 입지가 불안한 만큼 특별한



박병호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아스로 떠났다.

목표를 정하기 보다 주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작년부터 입지가 불안하다 스프링캠프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1루수가 됐든 지명타자가 됐든 주전 자리에서 뛰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힘겨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통해 바리그 무대에 도전한 황재균(31)에 대해서는 “멋있는 도전”이라며

“국내에서 좋은 제시가 있었는데도 꿈을 위해 도전한다는 자체가 멋지다. 용기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했다.

그는 “꼭 한 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다. 선발된 선수들 모두 최고의 선수를 아니냐. 모두 나보다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믿는다”며 웃었다.

/김민근기자



### 전북현대, 대구 FC 출신 에델 영입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공격진의 보강을 위해 대구 FC 출신 에델30, Edner Luiz Lima Da Sousa, 브라질)을 영입했다.

에델은 K리그 챌린지 대구에서 2015년부터 2016년을 뛰며 76경기 16득점 6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K리그에 대한 적응이 된 만큼 올해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선의 중앙에 배치될 에델은 돌파력과 뛰어난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골 결정력까지 높아 전북은 에델을 이용해 기존의 김보경, 이재성, 이승기 등과 구성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집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지훈련에 합류한 에델은 개인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 올린 후 선수들과 조지력을 다질 예정이다.

에델은 “아시아 최고인 전북의 유니폼을 입게 돼 기쁘다. 예전부터 전북 선수들과 플레이를 꿈꿔왔다.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체육회 사무처 직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 사무처 직원인 강동욱 스포츠진흥본부장과 이재인 종목육성과장, 김미녀 경영관리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도 체육회는 2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 월례회의에서 장관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관표창은 평소 전북체육 발전에 대한 공을 인정받은 상으로 특히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4순위와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9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여 세운 공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됐다.

/김민근기자

## 9일부터 평창올림픽 입장권 예매 신청

### 개·폐회식, 7경기·15종목·102세부종목 총 118만매 발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포함한 입장권 예매 신청이 오는 9일 시작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온라인 입장권 예매 신청을 개막 1년 전인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개·폐회식, 7경기·15종목·102세부종목 총 118만 매를 발행한다.

이 중 70%는 국내에서, 30%가량은 해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4월23일까지다.

인기경기 60%, 그 외 경기 80% 수준의 수량을 신청받는다.

인기 경기는 개·폐회식,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남자 1만m 제외), 스키점프(결승), 컬링(결승), 여자 아이스하키(4강 이상), 여자 아이스하키(결승) 등이다.

1인당 구매 할 수 있는 입장권 수량은 50매로, 인기 경기 4매, 그 외 경기 8매다.

예매는 홈페이지([www.pyeongchang2018.com](http://www.pyeongchang2018.com))를 통해 가능하다.

고 구입 관련 문의는 콜센터(1544-4226)로 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예매는 신청을 받아 추첨식으로 진행된다. 인증된 추첨 시스템을 거쳐 당첨된 사람에게 한해 구매 기회가 제공된다.

당첨 결과는 오는 5월8일 발표하며 결제는 비자카드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

2차 온라인 예매는 9월5일 시작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현장 판매는 10월부터 대회기간까지 진행한다.

입장권 평균 가격은 14만원이다. 최저 2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이다.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은 15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